

12-23 (통권 제 494호)

2012. 6. 28.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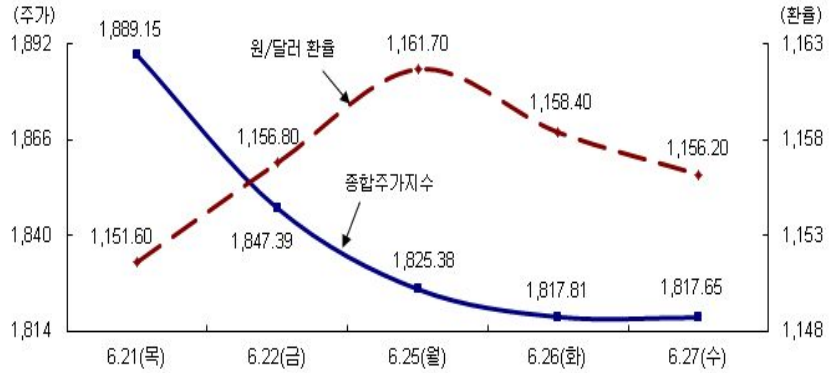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U-turn to 개성공단
-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 방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21~6.2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U-turn to 개성공단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집필 : 이 해 정 선임 연구원 (2072-6226,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U-turn to 개성공단 :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 방안

1. 개성공단의 성과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행한지 9년만에 연간 생산액 4억 달러의 공단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4월말 현재, 123개 기업에 51,500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누적 생산액은 16.6억 달러에 달한다.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만 달러에서 2007년 1.8억 달러, 2008년 2.5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 2011년 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1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 교역은 17.0억 달러로, 남북간 상업적 거래의 약 99.7%를 차지하고 있어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을 위한 산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개성공단은 노동 부문과 토지, 인센티브와 물류 부문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및 국내 공단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노동 부문) 개성공단은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저 임금의 경우 개성공단은 월 63.8 달러로 중국 청도공단의 1/3, 베트남 탄뚜언 공단의 2/3, 한국 안산 시화공단의 1/13 수준이다.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중국 청도공단이 전년대비 13%, 베트남 탄뚜언공단이 전년대비 29%에 달하는 데 반해 개성공단은 연 5% 이내로 법규로 제한되고 있다.

(토지 이용) 개성공단의 토지 가격은 1m²당 39달러로 중국의 1/3, 베트남의 1/5, 안산의 1/16에 불과하다. 특히,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 납부가 면제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개성공단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제상 혜택) 개성공단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금 우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가 폐지되어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물류 부문) 개성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저렴하며, 남북간 거래에는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어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3. 시사점과 과제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자 기업 특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토지 사용, 세제 및 물류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은 개성공단을 중소기업의 대체 생산기지인 U-turn 특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심천특구는 홍콩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시점에 맞추어 특구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주요한 초기 성공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성공단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성공단의 객관적 경쟁력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 논리에 따르는 남북경협 추진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객관적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단계 활성화와 2단계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강력한 개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둘째, 공단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도 요구된다. 남북한이 합의하여 통인프라 개선은 물론, 노무관리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 노력을 통해 안정적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FTA 추진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다양한 수출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

<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종합표) >

조건	중국 청도공단	베트남 탄뚜언공단	한국 시화공단	북한 개성공단
노동 및 임금	- 월 194달러 (개성공단의 3.0 배)	- 월 95.8달러 (개성공단의 1.5배)	- 월 831달러 (개성공단의 13.0 배)	- 월 63.8 달러
	- 최저임금인상률 전년대비 13%	- 최저임금인상률 전년대비 29%	- 최저임금인상률 전년대비 6%	- 임금인상률 연 5%이내 (법규로 제한)
	- 노동생산성 60%	- 노동생산성 40%	- 노동생산성 100%	- 노동생산성 71%
	- 높은 이직률, 인력 수급 어려움	- 유휴인력 존재하나 높은 이직, 3D업종 기피로 구인난	- 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채용	- 낮은 이직률, 인력 공급 부족
토지 이용	- 토지 가격 100~200달러/㎡ (개성공단의 3.8 배)	- 토지 가격 200~260달러/㎡ (개성공단의 5.9배)	- 토지 가격 658달러/㎡ (개성공단의 16.9 배)	- 토지 가격 39달러/㎡
세제	- 기업소득세 25%, -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폐지		- 법인세 10~22%	- 기업소득세 14%
물류	-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최소 1,020달러	-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 최소 1,130달러	-	- 왕바디 지입차 왕복 물류비 : 318~364달러
	- 기간: 5~7일 (산동성-인천)	- 기간: 9~10일 (호치민-부산)	-	- 기간: 1일 이내 (최단시간: 2 시간)
	- 관세: 6.5~13%	- 관세: 8~13%	-	- 관세: 무관세

자료 : 청도수출가공구홈페이지 <http://www.qdepz.com>, 탄뚜언공단 홈페이지 www.tanthuan.com,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조명철, 『개성공단과 주요 해외공단과의 경쟁력 비교연구』,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20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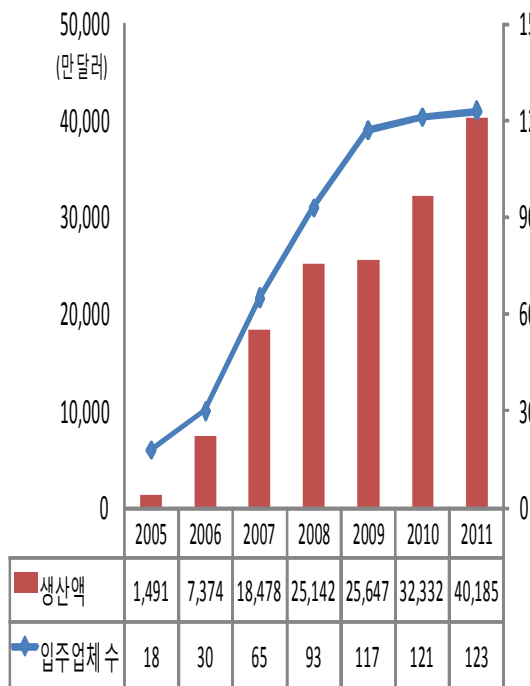
- 주 : 1) 청도공단 최저임금, 2012년 3월 현재 기준.
 2) 탄뚜언공단 최저임금, 2011년 8월 인상분으로 2012년 현재 기준.
 3) 개성공단 최저임금, 2011년 8월 인상분으로 2012년 현재 기준
 4) 안산 시화공단은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기준.
 5) 노동생산성은 의류기업의 시간당 생산성을 의미, '대당생산성(월간총생산량/미싱 대수)/월간근무시간'을 의미.
 6) 환율은 2011년 말 기준.

1. 개성공단의 성과

○ (개요)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행한지 9년만에 연간 생산액 4억 달러의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

- (현황) 2012년 4월말 현재, 123개 기업이 가동 중으로 51,500여 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16.6억 달러에 달함
- (생산) 2011년 연간 생산액은 4.0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에 비해 약 24.3% 증가 (1/4분기 증가율 : 2011년 17.2% → 2012년 22.7%)
 - 연간 생산액 : 2005년 1,491만 달러 달성 이후 2007년 1.8억 달러, 2008년 2.5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 2011년 4.0억 달러 달성
- (입주 기업) 2004년 12월 최초 기업 입주 이후 2012년 4월말 현재 123개 기업 가동중
 - 섬유 72개, 화학 9개,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식품 2개, 종이목재 3개, 기타 1개 등 123개 기업 가동

<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생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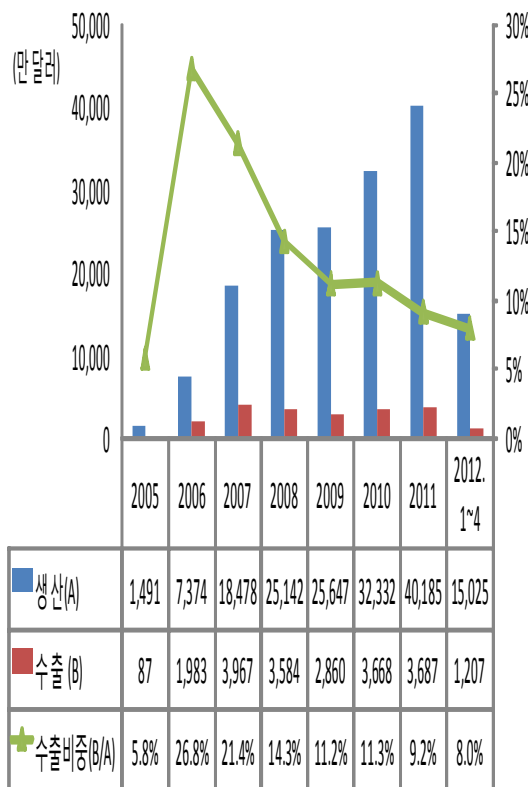
< 개성공단 일지 >

2000. 8. 22	현대아산-북측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 11. 20	북,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6. 30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2004. 6. 14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2004. 12. 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 9. 21	1단계 본단지 1차 24개 입주기업 선정
2007. 8. 2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6. 25	1단계 본단지 2차 183개 입주기업 선정
2008. 11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2010. 9	누적 생산액 10억 달러 달성
2011. 12	누적 생산액 15억 달러 달성
2012. 4월 현재	북한 근로자 51,500여 명, 123개 기업 가동, 누적 생산액 16.6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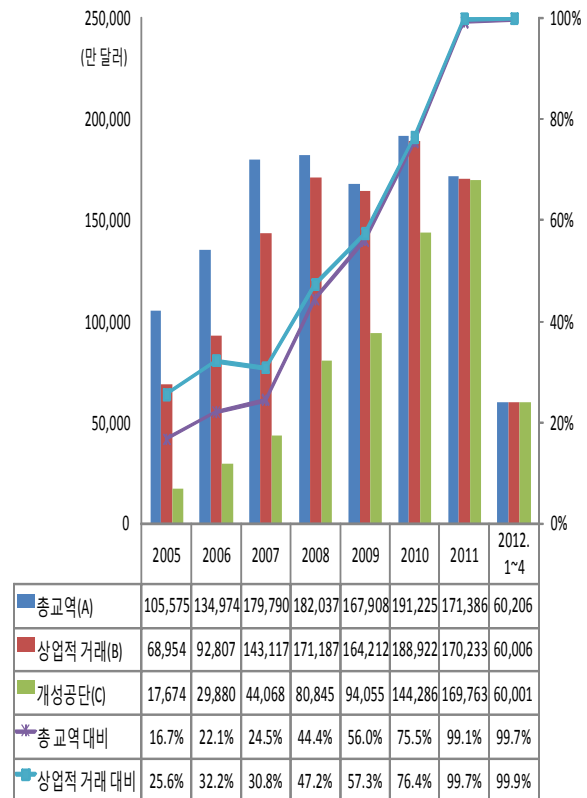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각호 참조.

- (수출) 수출은 2006년 전체 생산의 약 26.8%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2년 1~4월 현재 전체 생산의 약 8.0%를 차지
 - 주요 수출국은 호주(27.2%), EU(18.1%), 중국(15.6%), 러시아(15.0%), 중동(12.1%), 일본(1.8%) 순임
- (남북 경협 비중) 2011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 교역은 16.98억 달러로, 남북간 상업적 거래 17.02억 달러의 약 99.7%를 차지
 - 총 교역 대비 개성공단 사업 비중은 2005년 16.7%에서 2008년에는 44.4%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 1~4월 현재 99.7%를 차지

<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추이 >



<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각호 및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현황 각호 참조.

2.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1) 분석 개요

○ (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 지표)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는 공단 자체의 생산성, 공단의 내적 요소, 공단의 외적 요소 등의 3가지를 기준으로 분석

- 공단 자체의 생산성 : 노동생산성 등 부문별 입지생산성, 기존 단지내 업체들간의 연계, 분양률, 조성률, 휴·폐업률, 성장률, 가동률 등을 기준으로 판단
- 내적 요소 : 분양가, 지원 시설 구비 여부, 단지 내 용수, 전력, 전기 현황, 단지 내 사회간접자본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외적 요소 : 인센티브를 포함한 제도적 인프라, 물류 등 산업 인프라와 의료 및 문화적 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 사회간접자본 등을 기준으로 판단
- 본 연구에서는 공단 자체의 생산성 가운데 노동 생산성 부문과 내적 요소 가운데 분양가 등 토지 관련 부문, 외적 요소 가운데 제도적 인프라로서 인센티브와 산업 인프라로서 물류 등의 부문을 분석하고자 함

< 입지 경쟁력 지표 >

공단 자체의 생산성	노동생산성	
내적 요소	분양가 등 토지 관련	
외적 요소	제도적 인프라	인센티브
	산업 인프라	물류 등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요국 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 비교와 정책 시사점』, 2002. 12. p. 36 참고 재구성.

○ (비교 대상 선정) 중국과 베트남, 국내의 유사 특구 및 공단을 노동, 토지, 물류비, 세제상의 혜택 등을 기준으로 개성공단과 비교 연구

- 비교 대상 선정 : 중국의 산둥성 내 청도경제기술개발구와 베트남 호치민시 탄뚜언수출가공구와 국내 수도권 인근 공단인 안산 시화공단을 선정
 - (청도 경제기술개발구) 1984년 10월 중국 국무원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로 가전, 석유화학공업, 자동차, 선박, 신소재, 항공 물류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발전
 - (탄뚜언 수출가공구) 1991년 11월 국무회의 결정 안(제394-TC)호에 의해서 호치민시에 건설이 인가된 베트남 최초의 수출가공구로서 대만 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이 합작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의류·직물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고, 기계, 전기·전자업종 수입
 - (안산 시화공단) 1995년 준공된 경기 안산시 신길동과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로서 식품·섬유·종이·인쇄·화학·목재·비금속·1차금속·기계업종 등을 유치
 - (개성공단)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이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남북한 최대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발전

- 선정 이유 : 청도와 탄뚜언 공단은 정부의 개혁·개방 의지에 의해 선정된 공단이며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으며, 지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개성공단과 유사하여 비교 대상으로 적합
 - 안산 시화공단은 수도권에 인접한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공단으로 개성공단과 지리적,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비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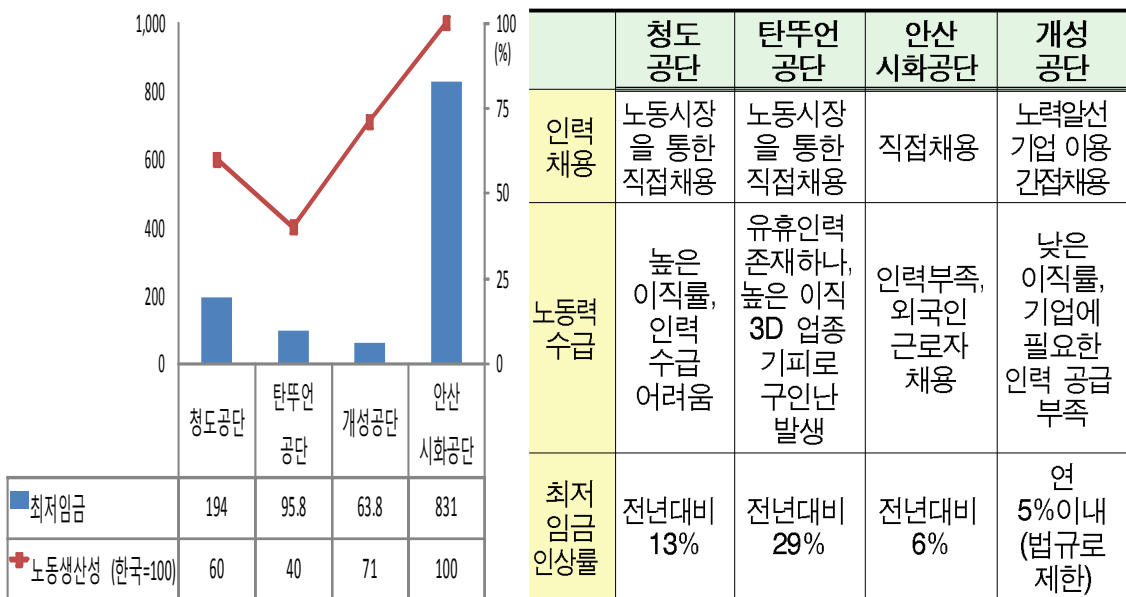
2) 분석 기준

① 공단 자체의 생산성

○ (노동 제도 및 임금)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이 개성공단 최고의 강점으로 지적

- 개성공단은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춤
-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은 월 63.8달러로, 중국 청도공단의 1/3, 베트남 탄뚜언 공단의 2/3, 한국 안산 시화공단의 1/13 수준임
-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을 통한 자율 채용이 가능하나, 개성공단은 노력알선기업을 통한 간접 채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적용의 어려움 등 고용 유연성이 부족한 것은 개선 과제로 지적
- 한편, 이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낮은 것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

< 노동제도 및 임금 비교 >



자료 : KOTRA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조명철, 『개성공단과 주요 해외공단과의 경쟁력 비교연구』,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2010. p. 125 참고

- 주 : 1) 청도공단 최저임금, 2012년 3월 현재 기준.
 2) 탄뚜언공단 최저임금, 2011년 8월 인상분으로 2012년 6월 현재 기준.
 3) 개성공단 최저임금, 2011년 8월 인상분으로 2012년 6월 현재 기준
 4) 안산 시화공단은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기준
 5) 환율은 201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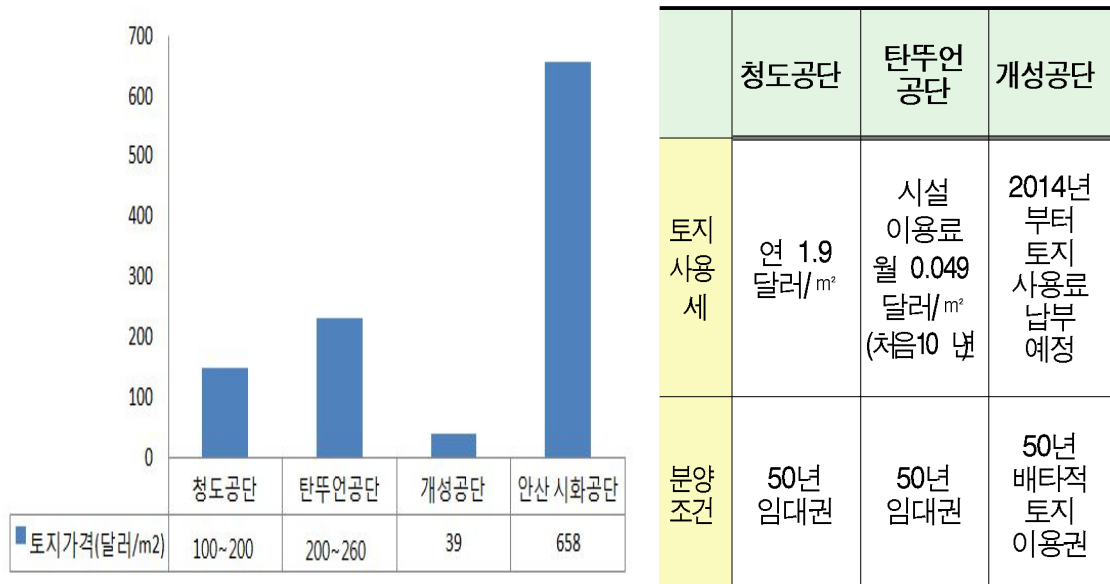
-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업들로 양질의 노동력이 저렴하게 제공되는 것을 개성공단 최고의 비교 우위로 손꼽고 있음¹⁾
 - 본 연구에서 노동생산성은 의류기업의 시간당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당생산성(월간총생산량/미싱대수)/월간근무시간'을 의미²⁾
 - 중국과 베트남에도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 의류업체의 경우 개성공단의 생산성은 중국 대비 110 수준으로 중국보다 우수하고, 한국과 비교해도 100 수준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음

② 내적 요소

○ (토지 이용 관련 혜택) 개성공단은 토지 가격이 저렴하여 중국의 1/3 수준, 베트남의 1/5 수준, 한국의 1/16 수준임

- 토지제도 :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 납부를 면제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외국 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개성공단이 좋은 여건임

< 토지제도 및 가격 비교 >



자료 : 청도수출가공구홈페이지 <http://www.qdepz.com>, 탄투언공단 홈페이지 www.tanthuan.com,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조명철, 전개서, p. 115~116 참고. 환율은 2011년 말 기준.

1)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실시한 『개성공단 현장조사보고서』(2008)에 의하면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진출)의 주된 동기는 '저렴한 노동력'(78.4%)의 활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노동생산성 비교는 조명철, 『개성공단과 주요 해외공단과의 경쟁력 비교연구』,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2010. p. 125 참고

③ 외적 요소

○ (각종 세제상의 혜택) 개성공단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각종 우대 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성공단의 비교 우위가 높아짐

- 조세제도 : 개성공단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금 우대 제도 적용으로 유리
-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폐지하고,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 소득세율 적용하고 있음

< 조세제도 비교 >

	청도공단	탄두언공단	안산 시화공단	개성공단
기업 소득세	- 25% 소득세율 적용 - 2008년부터 우대 제도폐지	- 25% 소득세율 적용 - 2009년부터 내외국인 기업 동일 적용	- 법인세 10~22%	- 당기순이익의 14% -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 면제종료 후 3년간 50% 감면

○ (물류 경쟁력) 개성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물류비는 물론,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

- 개성공단은 남한과 생산체계를 연계하여 물류 및 생산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A 입주업체는 피스당 물류비를 개성 150원, 중국 900원으로 개성공단의 물류비는 중국의 1/6 수준인 것으로 자체 분석
- 한편, B 입주업체는 중국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250만원, 베트남 컨테이너 20FT 왕복 물류비 400만원, 개성공단 왕바디 지입차 왕복 100만원으로 개성공단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

< 물류 경쟁력 비교 >

	청도공단	탄두언공단	개성공단
물류비	컨테이너 20 FT 왕복 : 최소 1,020달러	컨테이너 20 FT 왕복 : 최소 1,130달러	왕바디 지입차 왕복 : 318~364달러
물류기간	5~7일 (산동성~인천)	9~10일 (호치민~부산)	1일 이내 (최단시간 : 2시간)
관세	6.5~13%	8~13%	무관세

자료 : 조명철, 전게서, p. 158 참고 재구성.

○ (종합 비교) 개성공단은 임금 조건, 토지, 세제상 혜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월 최저임금은 중국이 개성공단의 3.0배, 베트남이 1.5배, 한국이 13.0배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음
- 토지 가격 부문에서는 중국이 개성공단의 3.8배, 베트남이 5.9배, 한국이 16.9배로 개성공단이 가장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음
- 물류비도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높음

< 중국, 베트남, 한국 시화공단과 개성공단의 입지 조건 비교(종합표) >

조건	중국 청도공단	베트남 탄뚜언공단	한국 시화공단	북한 개성공단
노동 및 임금	- 월 194달러 (개성공단의 3.0 배)	- 월 95.8달러 (개성공단의 1.5배)	- 월 831달러 (개성공단의 13.0 배)	- 월 63.8 달러
	- 최저임금인상률 전년대비 13%	- 최저임금인상률 전년대비 29%	- 최저임금인상률 전년대비 6%	- 임금인상률 연 5%이내 (법규로 제한)
	- 노동생산성 60%	- 노동생산성 40%	- 노동생산성 100%	- 노동생산성 71%
	- 높은 이직률, 인력 수급 어려움	- 유휴인력 존재하나 높은 이직, 3D업종 기피로 구인난	- 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채용	- 낮은 이직률, 인력 공급 부족
토지 이용	- 토지 가격 100~200달러/㎡ (개성공단의 3.8 배)	- 토지 가격 200~260달러/㎡ (개성공단의 5.9배)	- 토지 가격 658달러/㎡ (개성공단의 16.9 배)	- 토지 가격 39달러/㎡
세제	- 기업소득세 25%, -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폐지		- 법인세 10~22%	- 기업소득세 14%
물류	-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최소 1,020달러	-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 최소 1,130달러	-	- 왕바디 지입차 왕복 물류비 : 318~364달러
	- 기간: 5~7일 (산둥성-인천)	- 기간 : 9~10일 (호치민-부산)	-	- 기간 : 1일 이내 (최단시간: 2 시간)
	- 관세 : 6.5~13%	- 관세 : 8~13%	-	- 관세 : 무관세

3. 시사점과 과제

○ (개성공단을 U-turn 특구로 발전)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자 기업 특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U-turn 특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중국 및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심천특구는 홍콩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시점에 맞추어 특구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주요한 초기 성공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성공단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1월 발표된 코트라(KOTRA)와 대한상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240개 기업 중 12.5%가 유턴 의향이 있다고 답함
-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개성공단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대경제연구원의 입주기업 현장조사(2008년) 결과 중국·동남아 등지와 비교해서 개성공단이 사업성 및 생산성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0%였음³⁾
- 실제로 청도공단과 개성공단 진출 사이에서 고민하던 ‘나인모드’는 개성공단이 청도공단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국내 공장을 정리하고 개성공단으로 전격 진출한 바 있음
 - 이 외에도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진출한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3)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현장조사보고서 : 개성공단 사업의 애로 사항 및 보완 과제』, 2008. 미공개 자료.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설문조사(2011년) 결과 개성공단이 경쟁력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1.8%로 나타남.

○ (개성공단 안정적 관리 필요) 개성공단의 객관적 경쟁력 분석에 기초한 경제 논리적 접근 필요

- 개성공단은 객관적 경쟁력이 높은 만큼 정치적 불안정이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남북한 당국의 강력한 개발 의지 필요
- 개성공단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외자기업 혜택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하고, 북측 근로자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소득 증대의 장을 마련하는 윈-윈의 효과를 제공
- 따라서 1단계 활성화와 2단계 조기 착공 등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개발 의지 표명이 필요

○ (산업 단지 입지 경쟁력 제고 노력) 남북한의 협의 하에 공단 자체의 생산성과 내적 요소, 외적 요소의 부족한 부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남북한의 협의 하에 3통 인프라 개선은 물론, 제도적 인프라 개선 노력을 통해 안정적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
- 노무관리 개선과 함께, 장기적 인력수요에 대비한 인력 충당 방안 마련과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 생산성과 직결되는 안정적 인력 확충 방안 모색

○ (다양한 수출 판로 확보) FTA 추진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다양한 수출 판로를 확보해야 함

- 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게 하는 '원산지 특례 규정'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
- 또는,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함

이혜정 선임연구원 (2072-6226, hjlee@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20일	6월 2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6	1.63	-0.03%p
	엔/달러	81.19	80.66	77.66	79.05	79.51	0.46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683	1.2492	-0.0191\$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824	12,627	-197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752	8,730	-2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31	3.27	-0.04%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51.0	1,156.2	5.2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04.1	1,817.7	-86.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20일	6월 2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1.32	80.25	-1.07\$
	Dubai	88.80	106.75	104.89	94.27	91.24	-3.03\$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72.91	275.20	2.2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